3 - AUG 1 3
Copy 1973

15년

최 경 희

기차는 평양을 향하여 쾌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나는 우리 조국의 변모된 모습에 그만 취하여 한참 차창 밖만 정신 없이 내다 보고 있었다.

—참 변하기도 했군,

오랜 세월을 두고 락후하고 가난하던 우리 나라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 되였고 우리가 쓰고 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힘,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 지고 있지 않는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저, 여보시요.

뜻 밖에 귀'전에서 울리는 녀인의 목소리에 나는 그만 황홀한 지경에서 깨여 났다.

돌아다 보니 중년이된 웬 녀성이 웃으며 나를 찬찬히 쳐다 보고 있지 않는가!

—저 15년전 우리 공화국을 세우는 8,25 총 선거 때 배나무'골에 취재 나오셨던 기자 동무가 아니세요?

—아니 그럼 아주머닌 저의 첫 취재 대상자였던 순희네 어머니…? 허. 이거참 오래간만이군요.

한마음 한뜻으로

나는 15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첫눈에 알아 본 순희네 어머니의 기억력에 어지간히 놀라기도 했거니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던 그 잊을 수 없는 나날이 회상되여 대번에 흥분되였다.

—참 반갑습니다! 그래 순희랑 순식이, 순철이랑 다 잘 자랍니까? 고 코흘리개들이 이젠 꽤 컸겠지요?

—아니 세계에 자랑할 대 비날론 공장의 책임 기사인 김 순희 보고 《코흘리개》라니 원…

—아니 그럼 그 때 고 코흘리개…아니 그 순희가 이젠 책임 기사!?

-호호, 그 뿐인 줄 아세요?

—맏아들 순식이는 자동차 설계가로 됐고 순철이는 뜨락또르 기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참 우리 나라에는 18만 명이상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일 하구 있구 대학들에서는 매년 약 2만 명의 새 민족 간부들이 배출되고 있으니까요…

그 동안에 사위랑 손자랑, 아주머님 식구가 꽤 늘었겠구만요.

—모두 합해서 8천여명이나 되지요…

—뭐, 8천여 명!?

—우리 마을 700여명 농민들이 협동 농장을 뭇고 한집안 식구가 된건 벌써 7~8 년 전 이야기이고 지금은 전체 군 8천여 명이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지도 하에 한 집안 식구가 돼서 일한단 말씀이지요.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리화가 완성되고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가 기업적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니 해마다 만풍년 들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다가 힘든 농사를 기계로 하구요, 논'벼, 밭'벼, 옥수수, 감자, 목화, 사과, 소, 돼지, 토끼, 오리, 천, 기름, 통졸임이 쏟아지고…

—잠간만! 아니 천, 통졸임이 쏟아지다니요.

—《산을 잘 리용하라》고 하신 수상님 교시를 관철한 결과에 과거 대장'간하나 없던 우리 군이 방직, 식료품, 농기계 공장등 지방 산업 공장들이 들어 찼으니 그럴 수 밖에요.

—게다가 도시에는 고층 건물, 농촌에는 문화 주택이 줄줄이 늘어 서고…

—참 공화국 창전 15 년 간에 우리 나라는 강산도 사람도 모든 게 몰라 보게 변했어요!

—옳습니다. 헌데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무엇인데요?

—15 년 전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아주머니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것 같군요.

—웬 별 말씀, 내 나이 벌써 55 세인데요. 의식주 걱정은 없고 병들면 무상으로 고쳐주는 우리 나라에서 어찌 젊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참, 우리 나라에서는 90이 환갑이라는걸 깜박 잊어 먹었댔구만요. 하하… 헌데 아주머니 평양에는 무슨 일로 올라 가시는가요?

—대학 졸업식에 참가하느라구요.

—누가 졸업하시는가요?

—누군 누구야요. 졸업식에도 대신 가나요. 내가 대학 통신 학부를 졸업한다니까요.

—아주머니가!? 55 세에…참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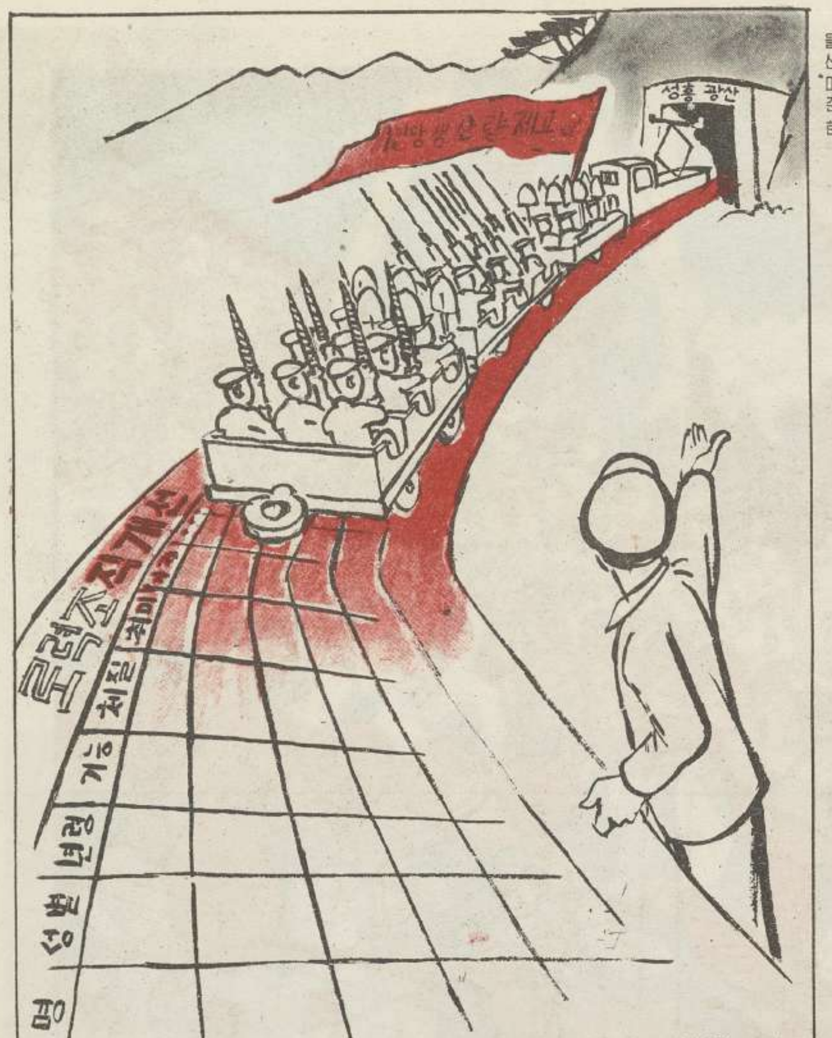
—그리 놀랄건 없지 않아요. 전체 인구의 중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무료로 공부하고 있거니와 누구나 다 힘껏 일 하며 배울 수 있는 우리 나라가 아냐요!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제도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아갑시다.

안 창수 그림

《축전 무대》

안 창수 그림



성흥 광산에서는 매개 사람들의 년령, 기능, 체질 등에 맞게 그들을 정확히 배치하고 로력 조직을 개선함으로써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계속 높이고 있다.

박 승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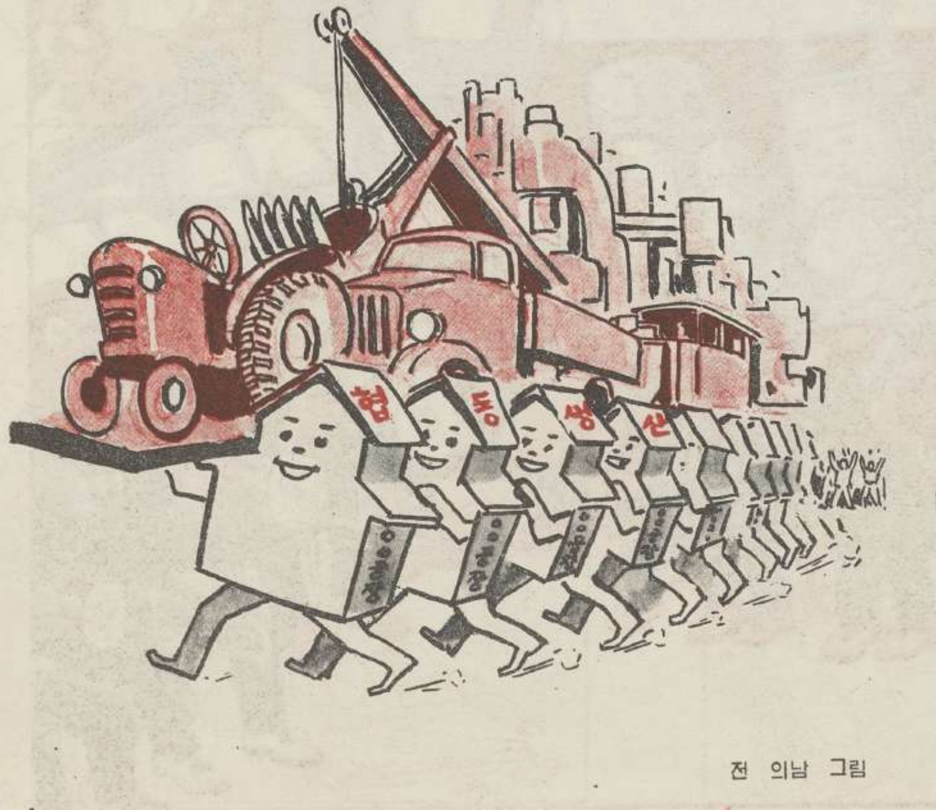
철저한 《방어 준비》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겨울철에도 생산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생산 준비를 선행시키며 원료와 연료를 예견성 있게 확보하며 로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등 과동 준비 사업을 미리부터 예견성 있게 해 놓아야 한다.

겨울—에크! 벌써 저렇게 방어 태세가 됐으니 다른데나 공격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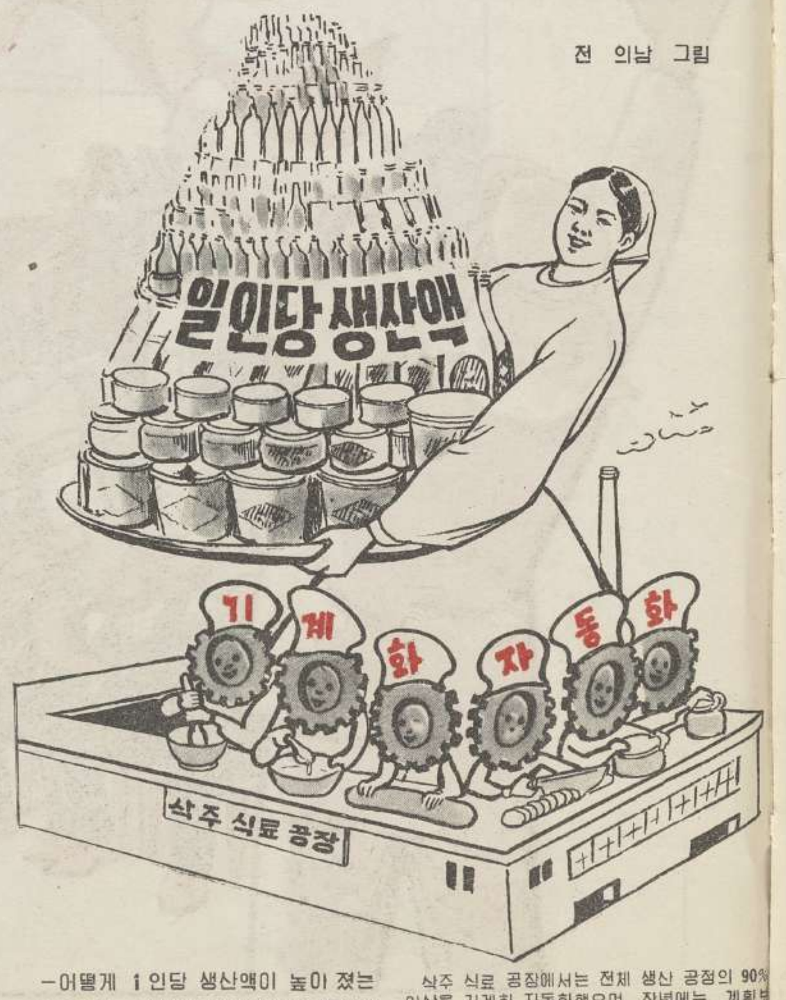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보조가 맞아야 한다



전 의남 그림

일하기는 헐하고 생산액은 높아진다



전 의남 그림

—어떻게 1인당 생산액이 높아 졌는가구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를 이렇게 도와 주지 않습니까!

삭주 식료 공장에서는 전체 생산 공정의 90% 이상을 기계화 자동화했으며 작년에는 계획보다 1.3%를 낮추었던 원가를 금년 5월까지에는 또다시 2.5% 더 낮추었고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계획보다 30% 이상 더 높였다.

선들바람이 분다

천 무삼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들바람이 불어 오고 있음은 《겨울 장군》의 《정찰대》가 우리 나라 고산 지대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9월에 《정찰》 나온 《백로》는 다음과 같은 정찰 재료를 《겨울 장군의 참모부》에 보내였다.

《<과동 준비를 일찍부터 하자!>는 구호는 우리 아군과 대결하기 위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구호임.

이에 따라 현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아군 주력이 래습해도 생산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생산 준비를 하며 원료와 연료를 예견성 있게 보장하면서 기술 관리와 보온 대책을 강력히 세우고 있음》

이런 《정찰》 자료를 놓고 《겨울 장군의 참모부》에서는 회의가 열렸다.

《소한》과 《대한》은 자기들에게 혹한과 설풍을 보강해 주기만 하면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 의견을 놓고 오래 동안 토의 하도록 한 것은 《추분》이 보낸 정찰 보고였다.

《<아군>의 래습에 대처하기 위한 일을 벌려 놓지 않고 선후차를 가려 중심 고리를 틀어 쥐고 하나 하나 정확히 해 나가는 이 곳 정세에 비추어 <소한>과 <대한 구분대>를 더 잘 무장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런 정보에도 《립춘》은 반대 의견을 내 놓았다. 그것은 《소한》, 《대한》으로 타격을 가한 후에 잘 보강된 《립춘》으로 강한 타격을 주면 틀림 없다는 의견이였다.

이 때 최종 《정찰》을 나간 《립동》으로 부터의 무전이 들어 왔다.

《선행 정찰이 놓쳐버린 중요한 것을 보고 하겠음. 이 곳 지도 일'군들은 과동 준비를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그들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며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하고 있음.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결의로 전 군중적으로 동원되고 있음》

새 정보에 따르는 새 의견들이 나왔다.

《혹한과 설풍으로 나를 보강하는 것이 상책이요》 (대한)

《나도 동감이요》 (소한)

《난 반대요. 보강 문제는 후년에 그들이 과동 준비가 잘 안되였을 때 론의하는 게 좋겠소》

이 두 의견은 오늘까지도 계속 대립된 채 론쟁되고 있다.

우리가 과동 준비를 미리 부터 잘 한다면 이런 《겨울 장군 참모부》의 론쟁이 어떤 방향에서 끝나든 지 겁날 것은 없을 것이다.

고속도 굴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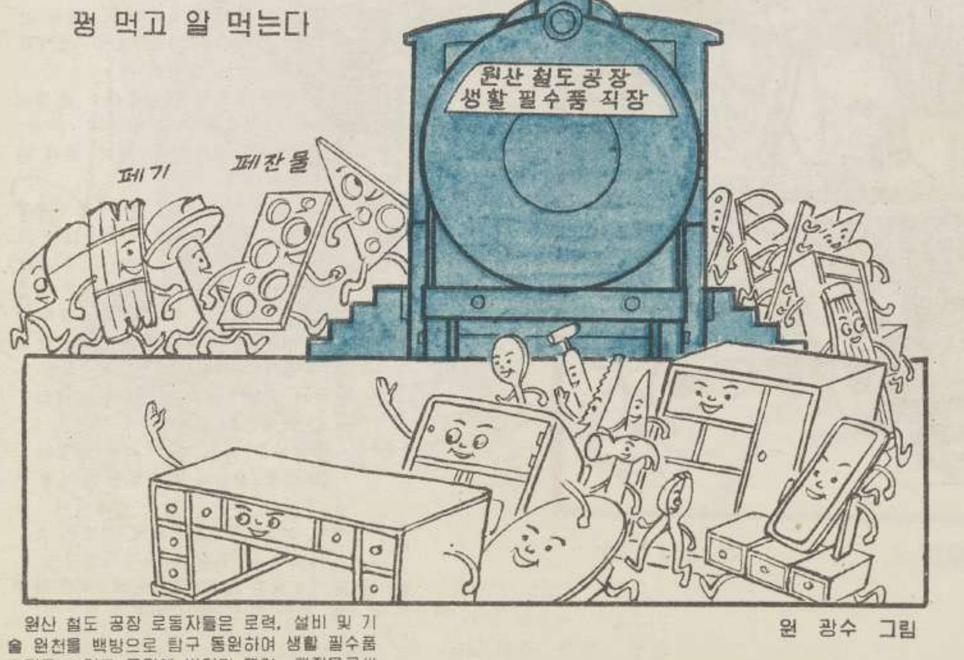
송 시엽 그림

안주 탄광을 비롯한 서부 지구 탄광들에서는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공무 직장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여 예비 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다.

주부를 대신하는 철제 일용품들

김 동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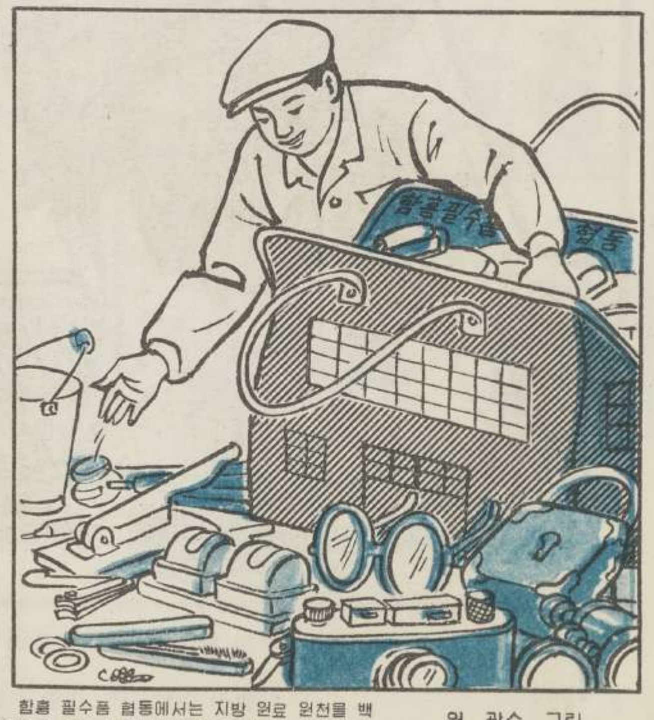
꿩 먹고 알 먹는다



원산 철도 공장 로동자들은 로력, 설비 및 기술 원천을 백방으로 탐구 동원하여 생활 필수품 직장을 꾸리고 종전에 버리던 폐기 폐잔물로써 다종 다양한 철재 및 목재 일용 필수품을 생산하면서 그의 질을 높이고 있다.

원 광수 그림

품종은 확대된다



함흥 필수품 협동에서는 지방 원료 원천을 백방으로 탐구 동원하여 지방 주민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도록 일용 필수품의 품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원 광수 그림

북청 농법

북청군 리하대 협동 농장에서는 밭에 간작과 혼작을 적극 실시하여 토지 리용률을 284 % 로 제고함으로써 정당 49 톤의 다수확을 예견하고 있다.

안 창수 그림

풍년 할아버지의 부탁

추수 때는 다가 오고 있다. 매개 협동 농장들에서는 풍작 이룬 곡식을 한 알의 허실도 -없이 제때에 걷어 들이기 위하여 제기된 당면 과업을 앞당겨 수행하면서 추수 작업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를 세밀히 세우며 필요한 작업 도구들과 운반 수단들을 원만히 갖추어 놓는 등 추수 준비를 철저히 해 놓아야 한다.

—한 알두 허실 없이 깎아 주시우다

—념려 마십시오. 이렇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요

전 의남 그림

《건강의 비결》

정 친

성천 읍리 협동 농장 5작업반 사무실 앞마당에서 달구지 5~6채가 모여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김 인환 농장원의 달구지는 어떻게 그리 건강한가?》

《건강의 비결이나 말해 보게나》

《비결이랄게 없네. 우리 주인이 농장의 주인답게 나를 자기 재산처럼 아끼고 사랑한 까닭이네. 수시로 기름을 처서 내 몸을 돌보는가 하면 짐을 싣고 갈 때에는 소를 찬찬히 몰아 내 몸이 상치 않게 조심하거든. 비나 눈이 오면 거적으로 나를 덮어 건사하는데 어찌 병이 생기겠나!》

김 인환 농장원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래, 써레, 후치, 쟁기들이 달려 와서 한 마디씩 건넸다.

《그 뿐만 아니지요, 김 인환 농장원이 오목골 옥수수밭에 거름을 싣고 왔다가 나를 구원해 주었지요.》(가래)

《이'발이 2~3 개 부러졌다구 나를 버린 것을 당신의 주인이 주어다가 이'발을 갈아 넣어서…. 정말 그 때 당신의 주인이 아니였더라면 나는 샘'골 논머리 개굴창에서 영영 썩고 말았을 거요!》(써레)

후치와 쟁기도 한 마디씩 하였다.

《우리를 낡았다고 내버렸던 것을 당신 주인이 점심 시간을 리용하여 정성껏 손질하여 소생시켜 주었소.》

어느새 날이 밝기 시작하였다. 농기구들은 인환 농장원에 대한 흠모의 정을 안고 헤여졌다.

봉이의 북청 견학

피 호 주

두번 놀란 이야기

봉이는 라하대 협동 농장 제 1 작업반장과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두 번씩이나 놀랐다.

《…저— 밭에서 토지 리용률을 최고 얼마나 높였는지요?》

《예—360%…》

《예, 예?!…그 그래요?!》

봉이는 놀라면서 반신 반의했다. 그것은 일반 밭의 그것보다 2 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요》 하고 반장은 종이에 작물 배치도까지 그리면서 랭상 모판에 랭상모와 함께 주작으로 옥수수 (토지 리용률—100%), 간작으로 감자 (70%) 혼작으로 당콩 (30%) 감자 후작으로 가을 배추 (60%) 를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토지 리용률은 260% 밖에 않 되였다.

《360%가 못 되는데요?!》 하고 봉이가 묻자 작업 반장은

《랭상모 100%도 쳐야지요》 하는 말에

《참, 그렇지요…근데 여기서 정당 수확고는 얼마나 되는가요?》

《예. 112.5 톤입니다》

《예, 예?!》 봉이는 또 한번 놀랐다.

알고 보니 감자는 정당 58 톤, 옥수수는 4 톤, 당콩은 0.5 톤, 가을 배추는 50 톤, 모두 112.5 톤…틀림이 없었다

봉이는 감탄한 나머지 반장의 손을 힘 있게 쥐고 흔들었다.

돼지 220 마리가 나온 논

《북청에서야 논 전작으로 겨울나이 시금치나 봄배추 채종, 아니면 유채만을 심겠지요?!》

이렇게 봉이가 청흥 협동 농장 김 관회 농산 기수에게 물었을 때 그는 벙긋 웃으며

《논 전작으로 22 정보의 논에서는 220 마리의 돼지도 나왔지요!》

《아니, 논에서 돼지가 나오다니요?》

《좀 들어 보십시요. 흑맥 청사료 20 톤의 사료 단위는 60 키로 돼지 10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량에 해당되니까, 22 정보의 논에서 440 톤의 흑맥 청사료 수확은 돼지 220 마리가 나온 셈이 아닙니까!》

봉이는 관회의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땅이란 땅은

봉이가 북청 농법을 견학하고 돌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삼덕이는 그를 찾아 갔다.

《…북청은 어디 가나 땅이 없더구만!》 하는 봉이의 말에

《뭐? 땅이 없다니?!》

《땅이란 땅에는. 즉 논, 밭은 말할 것 없고 논'두렁, 밭'둑, 하천 부지, 도로 주변, 산 경사지에 콩, 해바라기, 호박, 역삼, 딸기, 약초를 심었구…》

《그걸 다 땅에 심었으니까 땅이 아니고 뭔가? 흥,》

《농작물을 심은 땅이지 빈땅이 아니란 말일세! 돌각담도 땅으로 리용되고 있으니까!》

《뭐?! 돌각담도 땅으로?!》

《허허. 돌각담에다 호박, 박 넌출을 올려서 리용하고 있으니 말이야》

《으흥, 북청에서는 오직 빈땅이란 도로와 길 뿐이겠네그려!》

《아니 그것도 길과 도로 량 옆에는 피마주 혹은 역삼을 심었으니 완전한 빈땅은 없는셈이지!》

봉이 말에 느낀 것이 많은 삼덕이는 자기네 고장에서도 기여코 북청 농법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덧붙여 강조하였다.

《살 지게 길러 주세요》

평양 력포 구역 추당 협동 농장 천리마 제 4 작업반원들은 공동 축산에 의거하여 돼지 새끼를 비롯한 닭, 토끼들을 나누어 주어 정성껏 기름으로써 한 해 동안에 56 호의 농가들에서 호당 평균 3 마리의 돼지, 53 마리의 토끼, 10 마리의 닭을 길렀으며 도합 14 톤의 육류를 수매시켜 개인 부업 축산만으로도 호당 평균 600여 원을 벌었다.

박 승희 그림

선돌이와 후돌이

청진시 경성 청년 목장에서는 농후 사료와 자연 사료를 옳게 리용하여 선진적인 방법으로 닭을 사양 관리함으로써 암탉 7천 마리에서 한 마리 당 년 평균 160~165개의 알 생산을 보장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원 광수 그림

올라가는 환성, 높아지는 결의

공업－우리에게 많은 《식량》 을 공급해 주는 광부들의 명절을 축하합니다.
광부－보다 많은 생산으로 보답하겠소!!

백 인균 그림

(일제와 자본가놈들의 고역에 30 년간 시달려 온 평양 담배 공장 김 확실 어머니의 《사진첩》 중에서)

홍 종호 그림

남조선에서 보내온 한 미국 기자의 편지

제 1 신

안해에게

지금 나는 도꾜, 랑군, 쟈카르타, 콜롬보, 카트만투를 거쳐서 서울에 와 있소.

더분에 아세아 구경은 많이 했지만 《창건 15년간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락후성> 과 <취약성> 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오라》 라는 미 국무성의 명령만은 아직 수행하지 못 하고 있소. 북조선을 구경하고 왔다는 일본 사람, 비르마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쎄일론 사람, 네팔 사람들은 거의 다 만나보다 싶이 하고 깐깐히 캐여 물어 보기도 했는데 글쎄 이구 동성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지난날의 락후한 나라로부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 농업 국가로 전변됐다.

—뜨락또르, 자동차, 엑스까와똘, 대형 선박, 발전 설비, 비날론 등 현대적 공업 제품을 팡팡 생산하고 어떤 복잡한 대규모적 화학 공장, 야금 공장, 발전소도 자체의 손으로 건설할 수 있는 힘있는 중공업을 가지고 있다.

—북조선은 자체로 생산하는 상품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경공업 기지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적 협동 경리에다가 수리화가 완성되고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식량을 완전히 자급 자족하고 있다.

—모두가 무상으로 치료받고 마음껏 공부하면서 의식주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웅장하고 아담하다.

—황금의 예술의 나라다.

라고 칭찬하고 감탄만 할 뿐이 아니겠소! 그런데 나에게는 북조선 사람들이 《짚신을 신고 관솔' 불을 켜 들고 당나귀 타고 다닌다》 라는 자료가 절실히 요구 되거던. 그래 물어 봤더니

—짚신요? 네 그거 북조선에서 봤습니다. 평양 민속 박물관에 그거 전시되여 있습니다. 계급 교양 자료로서 … 라고 대답하는게 아니겠소.

—거 무슨 계급 교양 말입네까?

—다시금 지주, 자본가 제도를 강요하려는 당신들 양키 제국주의자들을 단단히 족칠 교양 자료이지요.

—췟! 나 그런 무서운 짚신 필요 없삽네다. 당나귀 타고 다니는 것 봤습네까? 봤다고만 하면 당신에게 5 딸라를 《선물》 …

—뭐 배수까지 하려하지 안아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 사람들이 모두 올라 타고서 달리고 있는건 사실이니까.

—오, 좋삽네다! 무엇 타고 있삽네까? 당나귀?

—아니, 말은 말이로되 천리마!

—으악!

그래서 요즘 나는 종종 실신을 하는 데다가 밤마다 그 무서운 《천리마》 가 꿈에 나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소. 시급히 《강심제》 와 《수면제》 를 보내 주기를 바라오. 안녕히

추기: 나는 지금 관솔' 불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소. 서울에서는 하루 30분 밖에 전기를 안 주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해주기를 바라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 국무성은 《대한 민국》 이 미국의 《원조》 로 《발전》 했다고 성명했으니까.

제 2 신

안해에게

오늘 나는 《북조선의 <취약성> 에 관한 자료나 수집 하라》 는 미 국무성의 엄격한 지시를 또 받았소.

—각하, 그거 불가능합네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다섯 살 났을 때 우리 미국 녹아났는데 지금야 15 살 아닙네까?

하고 상관에게 불평을 말해 봤소.

—노우, 우리 경험에 의하면 나라라는건 나이먹으면 먹을수록 약해지는 법이요.

거야 우리 미국이나 《대한 민국》 의 경험은 그렇지만 북조선야 사회주의 국가 아닙네까. 더우기 지금 북조선 사람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미제 침략자를 몰아내자!》 라고 와와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으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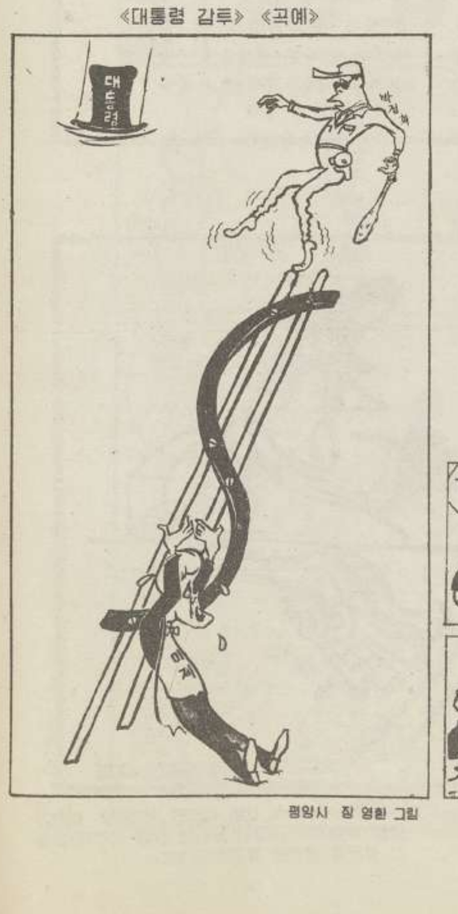
우리 상관은 그만 졸도하고 말았소.

그분이 원래 조선 전쟁 때 혼이 난 《장군》 이라는 걸 잊고 그런 말을 했으니 사랑하는 메리, 아마 나는 인차 파면이 될거요.

~이상~

독자투고

《대통령 감투》 《곡예》



평양시 장 영환 그림

군사 깡패들의 《성과》

평남 안성역 김 윤삼 그림

함흥시 미술 협동 조합 주 락겸 그림

련속 만화 현상 모집

계급 교양과 관련한 련속 만화 현상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창작 방향

근로자들을 반제국주의 사상으로, 계급적 원쑤들과 낡은 착취 제도를 증오하는 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내용을 주제로 하되 특히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그의 취약성, 일제의 조선 침략 죄악상, 지주, 자본가들의 계급적 본질과 악랄성을 폭로하는 것으로 형상되여야 한다.

2. 작품의 규격

※표지 장정은 4·6판 (12.7 cm×18.7cm) 혹은 국배판(10.6cm×15.1cm) 규격으로 채색 처리 할 것.

※내용은 16컽 이상의 련속 만화로 형상하되 매 컽의 규격은 4·6판 혹은 국배판 체제에 맞게 그릴 것이며 단색으로 처리 할 것.

3. 모집 기간

1963년 10월 30일 까지.

4. 심사 결과 발표

1963년 11월 15일 까지 잡지 《화살》, 《선동원》과 중앙 신문들을 통하여 발표한다.

5. 제출 장소 및 방법

평양시 외성 구역 선동원사로 직접 혹은 우편으로 보내되 응모자의 성명, 성별, 년령, 직장, 직위, 주소를 밝힐 것이며 겉봉에는 《현상 응모 작품》 이라고 쓸것.

6. 응모 작품의 처리

㉠입선 작품에 대하여서는 등급을 선정하여 해당한 상금을 수여한다.

㉡응모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선 동 원 사

《일등 료리사》

—이 집 템뿌라는 얼마든지 먹겠어…
도무지 느끼하지 않단 말이야

박 승희 그림

미군 고문관의 생일

신 홍순

《대대장!》

미군 고문관은 괴뢰군 대대장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내 생일입니다. 우리 미국 고문관들 모여서 연회와 무도회를 열겠는데 당신 꼭 와야 합니다》

《헤헤, 가 감사합니다.》

대대장은 어찌나 고마운지 어쩔 바를 몰랐다.

《당신 부하들 중에서 한 20 명만 뽑아서 데리고 오시오.》

《네 알았습니다》

대대장은 진정 고마움을 느끼면서 경례를 붙이고는 머리를 숙여 감사의 심정을 거듭 표현하였다.

(그 전 고문관은 몹시도 까다롭더니 이 번에 새로 온 이 고문관은 참으로 인정있고 친절한 사람이로구나)

대대장은 돌아 오면서 미군중에서도 이런 고마운 사람도 있는가 싶어 몹시 감동되였다.

그는 돌아 오자'바람으로 자기 부대 내에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멋지게 추는 대원만을 골라 세워 놓고 점잖을 빼며 일장 훈시를 하였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이 번에 새로 부임하신 미군 고문관 각하께서 자기의 생일 잔치에 특별히 우리들을 초대하셨다. 이런 일은 우리 국군 력사 상 전례가 없는 일이니만큼 모두가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예

고기와 음식은 량 껏 먹되 술은 정도 있게 마실것, 춤은 추되 눈치 봐서 실수 없이 할것, 알았는가? 그럼 출발, 앞으로 갓!》

그들의 대렬은 더욱 활기를 띠고 보무 당당히 걸어 갔다.

《고무관 각하!》

대대장은 경례를 붙이고 나서 보고하였다.

《대원들 중에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 사람으로만 뽑아 왔습니다》

《노오! 당신들 여기 경비 서란 말입니다》

《네?》대대장은 청천 병력이나 내린듯이 놀랐다.

《당신은 오늘 저녁 경비 서는 것 단단히 감독하시오! 알았습니까?》

(그러믄 그렇겠지, 미국놈이 례외가 있을 수 있느냐)

고문관이 돌아 서자 대대장은 속으로 《개 새끼!》하면서 침을 탁뱉었다.

그는 맥이 풀려 부하들만 경비를서게 하고 자기는 돌아 왔는데 다음날 아침, 늦도록 대원들이 돌아 오지를 않는다. 《어찌된 일인가?》하고 부랴 부랴 가 보니 대원들은 온데 간데 없다.

이상해서 물어 보니 모두 영창에 들어 갔다는 것이다. 리유인즉 간단하다.

그 날 밤에 고문관이 질탕치듯 술을 마시고는 곤드레가 되여 나가 떨어진 것을 대원들이 업어 다가 집에 눕혔는데 그가 찼던 팔뚝 시계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원들이 훔친 것이라고 하면서 몽땅 가둔 것이라 한다.

《아니, 대원들이야 내게 속한 사람이니까 벌을 준 대도 내가 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대대장은 분한 김에 입술을 떨면서 따지듯 말하였다.

《오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당신 지시 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지시 받지 않습니까?》

고문관은 능글맞게 웃으면서 담배를 꺼내려고 자기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는데 시계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가?

고문관은 뜻밖의 일인듯이 놀라며 얼른 시계를 자기 귀에다 대 보더니

《하하하…역시 살아 있습니다. 건강 상태 매우 좋습니다. 하하하…》하고 너털 웃음을 웃으며 자기의 방으로 들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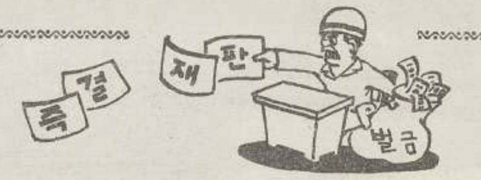
대대장은 민족적 멸시감에 가슴에서 울컥 치미는 분노를 걷 잡을 수 없어 어느 결에 권총에 손이 갔다. 그러나 그는 권총 케스를 잡은 채 석고상처럼 그 자리에 붙박혀 있었다.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한다

안 창수 그림

깡패식 미봉책

최 영근 그림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남조선에서 즉결 심판을 받고 구류당했거나 과료 또는 벌금을 문 사람이 무려 13만 358 명이나 된다고한다. 이는 하루에 625 명, 한 시간에 26 명, 2 분간에 1 명씩 재판한 셈이다.

그들에게서 과료 또는 벌금의 명목으로 빼앗은 돈은 자그만치 39 74만 원이나 되는데 그 돈은 괴뢰 정부《법무부》예산보다도 많다고 한다.

그러니 즉결 재판의 목적의 하나가 남조선 인민들에게서 세금을 받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애매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돈 빼내는 것이라 하겠다.

학교에 못간 사연

김 룡철 그림

박 승희 그림

빅 정희—용' 돈 몇 푼만 꺼내 주세요.

미제는 남조선 괴뢰 《정권》의 예산 편성은 물론 투융자의 규모와 방향의 설정 및 기업체들의 활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신 홍순 원작

박 승희, 원 광수 그림

《대한 민국》을 끌고 가는 자

박 정희-어디로 가랍쇼

《개》

《민주 공화당》에서는 어찌나 할 일이 없던지 상무 회의를 열어 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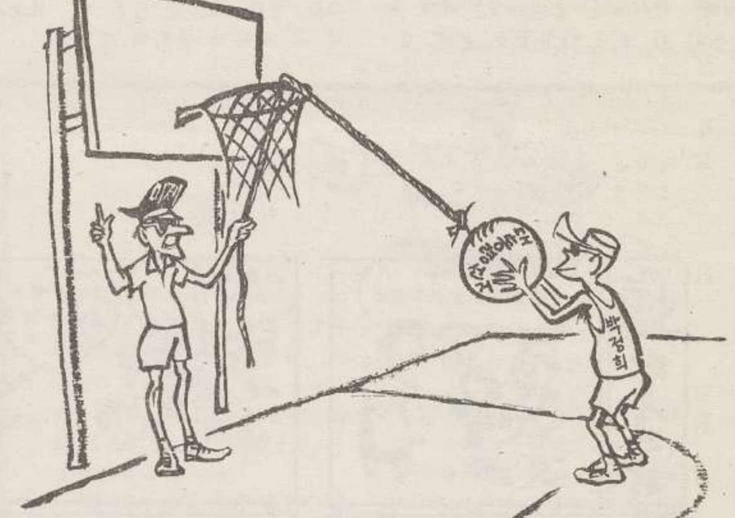
—외국에서는 당을 어떤 동물에 비유해서 상징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제를 걸고 토의했다고 한다.

갑론 을박 끝에 《황소》가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리유인즉 《황소》가 말 없이 사람들에게 복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 공화당》도 충실하게 복무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무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상전들에게 복무한다.

그러니 이왕이면 《황소》라기 보다야 《개》로 상징하는 것이 격에 딱 들어 맞을 것 같다.

《공명 정대》 한 《시합》



미제-안심하고 던지시오.

진퇴 량난

전 의남 그림

바빠났다

백 인규 그림

—빨리 갈아 입어!

미제는 전체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풍전 등화의 운명에 있는 박 정희 도당의《군정》을 《민정》의 간판으로 바꾸며 군사 깡패의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 입히는 형식으로 군사 파쑈 통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서울 지점장 《자격》

오 홍태

일본 어느 회사 사장과 인사 과장이 서울에 파견할 지점장을 고르고 있었다.

과 장 서울에 파견할 회사 지점장에 5백여 명이 지원했습니다만 우선 세 명을 골랐는데 그 중 사장님께서 한 사람만을 결정하여 주십쇼.

사 장 서울 지점장이 되려면 첫째로, 남조선 사정에 밝아야 하고 둘째로, 배짱이 있어야 하고 세째로, 대륙에 진출할 의욕이 있어야 하네.

과 장 사장님 분부 대로 골랐습니다. 에—(서류 한 장을 내 보이며) 이 히로가와는 과거 조선 총독부에서 과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사 장 그럼 한국 사정에 밝겠군?

과 장 물론입죠. 조선 말도 능하고 군사 정권 내에는 옛 친구들도 있답니다.

사 장 음, 괜찮군!

과 장 그런데 심장이 좀…

사 장 심장이 어떤가? 일본이 진출할 길을 닦겠다는 결심이 있는가?

과 장 결심은 있습니다만 심장이 약합니다.

사 장 심장이 약해?

과 장 예, 18년 전 조선에서 쫓기여 올때부터…

사 장 틀렸어. 다음 사람은?

과 장 이 번은 녀자인뎁죠.

사 장 뭐, 녀자야?

과 장 예, 우리 회사 서울 지점장으로 하나꼬상이 되면 박 정희는 오금을 못쓸겁니다.

사 장 그건 어떻게?

과 장 재작년 박 정희가 도꾜에 왔을 때 그의 접대를 시마다 하나꼬상이 맡았었습니다. 그때 박 정희가 하나꼬상에게 서울로 꼭 오라고 말했답니다.

사 장 으흐흐흐 이건 미인계까! 괜찮어, 그렇지만 한 사람 더 보자구.

과 장 이 번은 남조선 군사 정권을 완전히 틀어쥘 수 있다는 야마다군입니다.

사 장 호오, 어떻게?

과 장 직접 말씀 드리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 장 음, 그럼 만나 보자구.

△인사 과장이 나가자 야마다가 군대식 걸음걸이로 들어 온다.

야마다 사장님, 야마다 입뻬이 서울 지점장을 지망해 왔습니다.

사 장 음, 남조선 사정에 밝은가?

야마다 아닙니다. 남조선 땅에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 장 그럼 어떻게 군사 정권을 틀어 쥐고 흔들 수 있는가?

야마다 박 정희로 말하면 옛 날 제가 관동군에 있을 때 저의 부하로 있었던 자입니다.

사 장 호오, 그럼 박 정희와의 친분이 두텁겠구만?

야마다 그건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박 정희는 저의 부하였으니까 상하 간의 관계지 친분 관계라고 표현하면 매우 섭섭합니다.

사 장 지금도 상하 관계라 말할 수 있다면야……

야마다 물론입니다. 박 정희는 옛 상급을 모르는 위인이 아닙니다. 요 얼마 전에도 저에게 인삼 상자를 보내 왔습니다. 오노 반보꾸씨가 서울로 갔을 땐 박 정희더러 《대일본 제국 만세!》를 부르게 했지만 제가 서울로 가면 아마 이 야마다의 만세까지 부를 겁니다. 그 다음 박 정희는 나의 구령에 따라 앞으로 갓! 하면 앞으로, 뒤로 갓! 하면 뒤로 갈 것입니다.

사 장 좋소, 당신은 서울 지점장 자격이 있소!!

박 정희의 중요 역할

원 광수 그림

지지자는 늘어간다

안 창수 그림

미국에서 7월 1일부터 시작된 새회계 년도에 직접적 군사비만도 무려 560억 딸라나 되고 있는바 이것은 미제가 《평화》의 간판 뒤에 숨어서 얼마나 광란적으로 전쟁 도발 책동에 날뛰고 있는가를 드러내 놓고 있다.

케네디—흐흐…간판은 여하튼 군비를 더 늘궈야겠다

최 영근 그림

침략자의 상투적 수단

원 광수 그림

남부 월남 전선에서

조 명식 그림

—케네디 각하 보고!《전과》확대 중. 닭가 부대 증원 바람!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지난 상반년 동안에 양키들과 괴뢰군 3만 5천여 명을 살상 포로하고 미국제 비행기 192 대를 격추, 격상하였다.

식민주의자의 운명

로 철

1961년 12월 5일, 케네디가 미국 축구 기금 위원회의 연회에서 밑도 끝도 없이 소위 《평화를 위한 건강 계획》이라는 것을 내놓고 자기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장황하게 자랑하고 나서 미국인들에게 《당신들도 신체를 단련하고 축구도 많이 하여…<아메리칸 건축 및 설계 회사>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여러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훈련 중심>, <의학 학교>에서 복무하라》고 《호소》 한 바가 있었다. 이 케네디식 《계획》은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이요 《평화 부대》요 《진보를 위한 동맹》이요 하는 침략 계획과 마찬가지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한창 타 오르고 있는 반미 반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불'길을 조금이라도 꺼보려는 미제의 간악한 음모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루루히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그후 2년이 지난 오늘 바로 그 케네디 자신의 건강 상태는 어떠냐 하는 것은 흥미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헌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권위 있는 의사의 말보다도 지난 8월 초에 있은 미 국가 안전 위원회 회의 정형에 관한 유피아이 통신을 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통신에 의하면 이 날 회의에서는 케네디의 참가하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날로 장성되는 반미 감정 문제가 《아주 심각히》 토의 되였다 한다.

—우선 아세아 문제 담당 국무차관보부터 보고하십시오. 라오스, 남부 월남에서 우리 미국 《평화를 위한 건강 계획》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삽네까?

—네, 각하 아주 성과적으로…

—오 좋삽네다. 성과적으로 파테트 라오 전투부대,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 《소탕》 하고 있단 말이지…

—노우, 성과적으로 《소탕》 하고 있기는하나 노사방 군대, 디엠 군대, 그 《빨갱이》 쪽으로 달아 나고 있는 것이 골치 입네다. 그리구 금년 상반년에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에 우리 미군 장병들과 디엠군 3만5천 여 명이 살상 포로되고 비행기 192 대가 격추 격상됐삽네다.

—무, 무엇이!?

—그 우리 괴뢰고용병 녀석들에게 계획에 따라 달리기 련습 시켜 주었더니 전보다 더 성과적으로 탈주…

—닥 닥치십시오! 오우, 나 머리 어질어질 합네다. 아프리카 담당 국무차관보, 당신 보고하십시오. 당신<훈련 중심>, <의학 학교> 많이 만들었삽네까?

—네 각하, 콩고, 앙골라, 잔지바르 등지에 많이 많이 만들었습죠. 그런데 저…<훈련 중심>, <의학 학교> 세우는쪽쪽 이 지역 유격대들에게 점령 당한 결과에 그만… 더구나 앙골라 유격대들에게 앙골라 국토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점령 당했삽네다.

—갓뎀!! 오우! 나 건강 상태 매우 매우 나쁜 것 같삽네다. 나 심장 마비 일어 날 것 같삽네다. 오늘 회의는 이만…

—각하 잠간만 더 참아 주시기를. 지금 라틴 아메리카 담당 국무차관보, 보고서 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백악관으로 오는 중이 온데 그 보고까지 마저 듣고서…

—무엇이? 병원에 입원!? 어째서?

—당신의 《호소》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에 《축구 많이 하라》고 선전했더니 《양키 물러 가라!》고 하면서 축구뽈 걷어차듯 저마다 우리 미국 관리 배격하는 통에 국무차관보도 허리가 부러져서

—으악!

—각하! 각하! 기절하셨군. 라틴 아메리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 무장 투쟁, 특히 베네주엘라에서 유격대들이 수도 감옥을 습격하고 600여 명의 정치범을 석방한 사건, 10여 차에 걸친 미국인 석유 기업소 송유관 창고 습격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더라면 각하가 영 저승 사람으로 될 번 했군…

물론 이것은 이 날 회의 정형을 형상적으로 그린 것이지만 이 날 회의가 《심장 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첨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되였다는 유피아이 통신의 보도로 미루어 보아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식민주의자의 운명이 그리 길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투쟁의 필봉으로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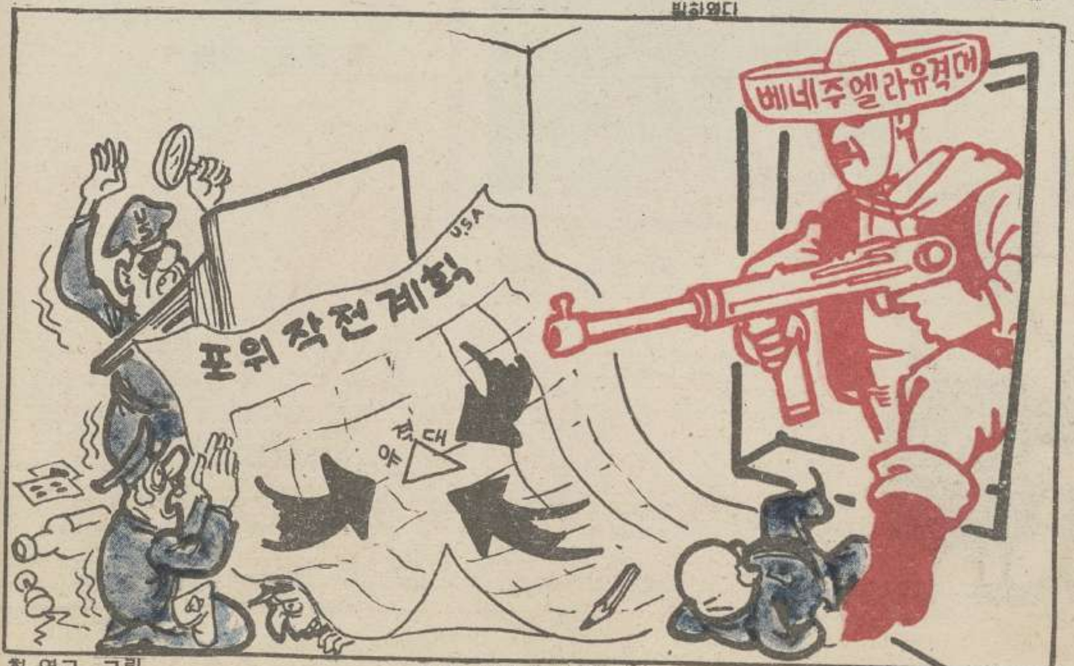
《만성 마비증》

박 승희 그림

—처방도 없는데 환자들은 드리 밀려 오는군…

포위전

베네주엘라에서는 반미 반 정부 무장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바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도 민족 해방군이 미국인 석유 기업소, 송유관 및 창고를 10여 차에 걸쳐 습격하였으며 수도 감옥을 습격하고 600여 명의 정치범을 해방하였다



최 영근 그림

—포위 됐다 꼼짝 말앗!

한 방울도 안 된다

전 의남 그림

최근 쎄일론 정부는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 석유 회사들의 모든 설비와 재산을 국유화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일축하였다.

8280 ХВАЛЬСАЛЬ

95

LIBRARY OF CONGRESS
0 041 643 854 7

가리울 수 없는 현실

최 영근 그림

미제—이것이 북조선이야!

새 발명의 운명

(미국에서)

최 영근 그림

화 살 9호 (170)

발행소: 선 동 원 사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1963년 8월 30일 발행

7—0772 값 50 전

앞표지 … 송 시엽 그림